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짧은 말씀 묵상집 (43)]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범죄자인 두 강도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여 처형되신 예수님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마가복음 15:26-27)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못박히신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막 15:26)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마 27:37), “유대인의 왕”(막 15:26; 눅 23:38)]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요 19:19).

(a) 처형되는 죄수의 죄목을 밝히는 내용의 패를 목에 걸거나 가슴에 매달고 형장까지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 죄패를 머리 위에 매다는 것은 당시 로마 처형법상 한 관례였습니다(호크마).

(b) 예수님의 죄패는 빌라도가 쓴 것으로(요 19:19) 죄패의 내용이 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것은 죄패가 세 가지 언어인 각 지방에서 오는 순례자를 위해 히브리어(아람어)와 헬라어(당시의 보편적인 언어)와 라틴어(로마의 공용어)로 각각 쓰여졌기 때문인 듯합니다(20절). 그중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가장 완전한 형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호크마).

(c) 빌라도가 이 말을 쓰게 한 것은 이 죄명을 통하여 자신의 반유대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유대 민족을 조롱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호크마).

(d) 복음서 초두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예배했었고(마 2:2) 그분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었는데 이제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에 로마의 군인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옷을 벗기은채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의 십자가 아래 달아있으면서 처음에 붙여진 그 칭호를 마지막으로 달아 준 것입니다. 이와같이 묘하게도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약 백성, 선택 받은 백성인 유대 민족들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께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를 부여하

는 것을 거부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요 19:21)(호크마).

(2) 강도 둘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눅 23:32)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못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습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습니다(요 19:18).

(a) 다른 사형수인 두 강도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일반 사형수와 같이 강도나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여 처형되신 것임을 말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37절[“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내게 관한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현대인의 성경)]과 이사야 53장 12절[“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현대인의 성경)]에서 언급된 예언의 성취를 확인시켜 줍니다(호크마).

(i)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죄가 없으셨습니다”(히 4:15, 현대인의 성경)]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고후 5:21, 현대인의 성경)] 범죄자처럼 되셨습니다(사 53:12; 눅 22:37). 그 목적은 “...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롬 8:3, 현대인의 성경).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은 “한 사람” (마가복음 10:17, 현대인의 성경) 또는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하고 물은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9:16-17,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그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하고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마가복음 10:19)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9:19,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마가복음 10:20, 현대인의 성경)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9:20, 현대인의 성경).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 버렸다’(마가복음 10:21-2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하고 물었는데(마 19: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 8-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참고: 로마서 6: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왜 그 청년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졌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어쩌면 그 이유는 그는 “어려서부터”(막 10:20) 모세의 십계명(비록 19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5, 6, 7, 8, 9계명과 10계명대신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을 지키므로 구원(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2)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 청년에게 “...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 19:17, 현대인의 성경)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그 청년이 “완전한 사람”(21절, 현대인의 성경)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호크마에 의하면 “그 청년이 목표로 삼고 있는 영생에 이르는 데 조금도 핍절함 없는 완벽한 상태, 즉 절대적인 자기 부인(self-denial)과 철저한 순종 및 완전한 자기 의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호크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사람이 계명은 완전히(온전히) 지켜서 “영생에 이르는 데 조금도 핍절함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그 청년은 예수님께 “어느 계명입니까?”하고 여쭙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막 10:19)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마 19:19,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두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a)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계명(막 10:19) 중에 5계명은 모세의 십계명 중 5, 6, 7, 8, 9계명인데(누가복음 18장 20절은 이 다섯 계명만 기록하였음) 나머지 하나인 “속여 빼앗지 말라”[“남의 속여 빼앗지 말아라”(현대인의 성경)]는 10번째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 20:17)과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여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가 그 청년이 남을 속여 빼앗아서 재산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 청년은 예수님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20절) 하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완전히)(마 19:21) 지키지 못했던 것을 완전하신 예수님은 아시고 “속여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셨을까요?

(b)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6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 20:17)는 말씀이나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참고: 마태복음 22:39, 현대인의 성경)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나 마태복음 19장 18-19절에서 말씀하신 모세의 십계명 중 5계명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 중 두번째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예수님께서 모세의 십계명 중 1-4번째 계명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 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로 말씀하셨고, 5-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39절)로 말씀하셨음].

(4) 그 청년은 예수님께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막 10:20, 현대인의 성경)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하고 말했다(마 19:20,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웬지 그 청년은 “완전한 사람”(21절, 현대인이 성경)이 되려고 했으면서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께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하고 여쭙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 한들 완전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참고: 고후 12:9)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시 23:1, 새 번역)는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5)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 버렸다’(막 10:21-2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a)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신 주님이 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b)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

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막 10:2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것 또한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신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수 없이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그래야 제가 조금 이나마 겸손히 주님을 찾게 되며[(참고: 시 34:10, 현대인의 성경)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목자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때 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시 23:1, 새 번역)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드릴 때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c)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서 사는 것은 제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좀 애쓰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삶은 거의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1주일에 한번 형 선교사의 노숙자 사역에 아내와 함께 샌드위치 하는데 다닙니다. 제 마음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결핍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d)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 버렸다(막 10:2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 또는 거부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적어도 그 청년은 주님과 재물은 함께 섬기기 않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선택하든 재물을 선택하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과 재물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 새 번역 말씀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재물/돈)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존재와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세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마가복음 12:18-27,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 22:23-28; 누가복음 20:27-33)는 말씀 중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가복음 12:19,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1)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막 12:19, 현대인의 성경)하고 예수님께 말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18절, 현대인의 성경) 부활 신앙을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식 없이 죽어 버린 7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내서(호크마) 말하면서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 (a) 여기서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저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지 이미 묵상한 4가지 이유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i) 그 첫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5장 13,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ii)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5장 14,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 또 그

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3-4절).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믿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헛된 믿음과 헛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전도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15절).

-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요 11:25).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참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iii) 세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3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용서)하여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았는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여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요 8:21).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며 영원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죄 용서함이나 구원 또는 화목이나 영적 삶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iv)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잠자는(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구약에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직 죄 가운데 있기에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히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어(요한복음 10:28)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b)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식 없이 죽어 버린 7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내서(호크마)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하고 물었다(막 12:23, 현대인의 성

경) 말씀을 묵상할 때 “...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란 말씀에 관하여 호크마의 해설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토론을 하기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수수께끼였던 것 같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했다. 부활 후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정확히 대응된다면 부활한 그 여인은 근친상간의 결혼의 죄의 책임을 지든지 그 형제들 중의 한 아내로 지목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그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그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의 개념은 불합리한 것이 될 뿐이다. 사두개인들은 이 수혼법(嫂婚法), 계대(繼代) 결혼법이 모세의 법인데 모세가 그런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면 율법을 준수했을 때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계명을 명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교리는 모세도 알지 못했던 것이며, 솔로몬 시대 이후에야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Lenski). 이 문제는 과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었으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존재와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호크마).

(a)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철학적인 토론을 하기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이란 문구입니다. 왜 이 문구가 저에게 흥미롭냐면 몇 달 전에 대학교 친구가 저에게 자기 친구와 성경에 관하여(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학에 관하여) 견해 차이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친구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끌어들어서 그 목사님과 논쟁을 하다가 저에게 좀 개입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저는 그 친구를 요청을 제 나름대로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엔 그러한 논쟁은 유익하지 못하고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02년 5월 7일에 “교회 선생?”이란 제목 아래 적은 짧은 말씀 묵상 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키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으면서 교회 선생이 되고 싶어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며 주장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딤후 1:3-7; 딤후 2:1, 현대인의 성경) 존 파이퍼 목사가 “진리의 영웅들”이란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논쟁을 즐기는 것이 교만의 표시인 이유는 겸손은 진리에 기초한 승리보다 진리에 기초한 연합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파이퍼).

(b) 두번째 흥미로운 점은, “그들(사두개파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했다. 부활 후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정확히 대응된다면 부활한 그 여인은 근친상간의 결혼의 죄의 책임을 지든지 그 형제들 중의 한 아내로 지목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그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그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의 개념은 불합리한 것이 될 뿐이다”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저에게 흥미로운 이유는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노림수가 부활의 개념은 불합리하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여자는 일곱 형제 중에 어느 한 명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근친상간의 결혼의 죄를 인정케 함과 더불어 그 부활한 몸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악한 몸”(고전 15:43)을 지닌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에 그들에 생각에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참고: 호크마).

(c) 세 번째 흥미로운 점은, “사두개인들은 이 수혼법(嫂婚法), 계대(繼代) 결혼법이 모세의 법인데 모세가 그런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면 율법을 준수했을 때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계명을 명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교리는 모세도 알지 못했던 것이며, 솔로몬 시대 이후에야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Lenski)”하는 문구입니다[여기서 “수혼법”이란 “가족 중의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신 25:5-10) 계대 결혼법(繼代 結婚法)이라고도 합니다”(다국어성경)]. 이 문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진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모세오경의 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하게 된다고 믿었기에 모세오경이 자기들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여 모세조차도 부활의 교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인터넷). 그들은 워낙 유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국(인터넷)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에 모세오경을 쓴 모세를 옹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d) 마지막 네 번째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는 과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었으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존재와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는 문구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하나님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마가복음 14:55-59)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막 14:55).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a) 그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는데 먼저 그 공회가 합법적 공회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호크마에 의하면 그 공회는 불법적 공회였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호크마): “산헤드린은 세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도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전체 회원수는 72 명이나 회의의 정족수는 23명이면 되었다. 따라서 본문의 '온 공회'는 모든사람이다 참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헤드린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족 인원이 모였을 뿐 아니라 그 회의의 핵심적(核心的) 인물들과(대제사장 등)이 모여 그 심문에 있어서 하나의 주체로서 관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호크마).

(i) 만일 이 해석대로 그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적 공회였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몹시 집착하고 몰두하여서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광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참고: 인터넷).

(b)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만한 증거도 없었으면서 먼저 예수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만한 증거도 없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체포한 것일까요? 먼저 증거를 찾아놓은 후에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i)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심지어 많은 거짓 증인들 까지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56절). 유대 재판에서 증인은 기소 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들의 증언은 각각 따로따로 행해야 했기에(호크마) 그 거짓 증인들은 미리 서로의 증언(말)을 맞추지 (일치시키지) 못하고 각각 따로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 (ii) 그 때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하였습니다(마 26:60-61, 현대인의 성경). 드디어 두 증인의 일치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 이 일치된 증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호크마의 말입니다: “확실히 주님은 성전을 비난하고 그 건물의 무너짐을 예언했었다. 그러나 증인들은 성전을 정죄한 예수를 성전 파괴를 직접 감행할 범법자로 혼동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로 처형되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접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 단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일밖에는 없다(요 2:19-21). 더욱이 그 말씀의 참 뜻은 자신이 죽은 후 사흘만에 있을 그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지 옛 성전이 몰락한 후 사흘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예언을 한 것은 정녕 아니었다. 그러므로 증인들의 말은 순전히 오해에 의한 증언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 두사람의 증거는 서로 일치하지 못함으로써(막 14:59) 그 증언의 신빙성마저 결여되고 있었다”(호크마).
 -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전히 오해의 의한 증언에 불과했지만 그 두 사람의 증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배 처소인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성전 모독 죄였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하였으므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는데(10:33) 성전까지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었으니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참고: 막 14:55, 현대인의 성경)

- 결국에 가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눅 24:20,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 20:18-19, 현대인의 성경). 성취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하신 말씀의 의미였습니다(참고: 마 26:61).

(c) 거짓 증인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 (i)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증언을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뿐이다”(잠 12:17, 현대인의 성경).
- (ii) “신실한 증인은 사실대로 말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 증인은 사람을 배신한다”(잠 14:5, 25, 현대인의 성경),
- (iii) “거짓 증인의 말은 곧 사멸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한다”(잠 21:28, 현대인의 성경),
- (iv)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장이는 망하고 말 것이다”(잠 19:5, 9, 현대인의 성경).
- (v) “너는 이유 없이 네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라”(잠 24:28, 현대인의 성경).
- (vi)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잠 6:16, 19, 현대인의 성경).
- (vii)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아라”(신 5:20, 현대인의 성경).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어렵다 …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마가복음 10:23, 25,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마태복음 19:2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10:27,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2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어렵다 …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막 10:23, 25,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어려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분명한 것은 부자나 빈자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호크마). 시편 49편 6-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난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13절).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7절).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난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8절). 자신들이 돈이 많아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8-9절).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게 구원하시고자 너무 엄청난 속량의 값을 치루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떠한 속량의 값을 치루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갈 3:13).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히 2:17, 시 130:8).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골 1:14). 우리는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 (롬3:24)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갈4:5). 이렇게 우리는 돈 없이 속량되었습니다(사 52: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시사 우리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시 49:1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시 52:7).

- (2)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마 19:2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0:27, 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눅 1:37, 새 번역).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욥 2:9하,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2장 8-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흠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 흠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현대인의 성경)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한 청년은 베 흠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마가복음 14:50-52)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막 14:50).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흠어지리라”(27절)하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가롯 유다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로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잡았을 때(공격하였을 때) 예수님의 “양들”인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참고: 호크마 주석).

(a) 여기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신 것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란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 말씀의 성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흠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현대인의 성경)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짝을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흠어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칠 것이니'"].

(i)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 목자” 즉 “내 짝 된 자”라는 히브리어 원어 “아미다”는 “나의 가장 가까운 자”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일체이신 메시아(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워 십자가에 못 박히우실 것을 가리킵니다(호크마).

-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반영하고 적용할 때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시련을 당할 때 “내 짝 된 자” 즉, “나의 가장 가까운 자”인 제 아내도 저와 함께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면 저의 짝 된 자요 저와 가장 가까운 자요 저의 “한 몸”(막 10:8, 개역한글)인 사랑하는 제 아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부부 일심동체(夫婦一心同體)’는 ‘부부는 한 마음 한 몸’이라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하나처럼 가깝게 지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부부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서 마치 한 몸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인터넷)].

-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자로서 요한복음 6장 1-15절(오병이어의 말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떡 다섯 덩어리로 남자만 약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신 말씀)에 나오는 “한 아이”(9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다 바친 것처럼 저 또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받쳐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란 제 생명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자녀들도 다 주님께 바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게나마 1987년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께서 저를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으로 부르셨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께 받치고자 조금이나마 몸부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 제 마음에 복음성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가사가 생각나곤 하였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ii) 스가랴 13장 8-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내 백성의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은과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우심에 따라서(7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환난 중에서 많이 멸망당하고 그들 중 기독 신자들은 영생에 참여하게 됨을 가리킴

니다. 그러나 기독 신자들도 환난 중에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호크마).

- 환난 중에서도 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하신 말씀(9절)은 바로 (1) 신앙상 연단을 받음, (2)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 (3)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임(호크마).

- 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1)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b) 여기서 예수님의 “양들”인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말씀(막 14:50)을 묵상할 때 그 모든 제자들 중에는 사도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기에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27절)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답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29절).

- (i) 여기서 드는 생각은 실로 우리는 “절대”란 말을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50절,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 자신지 주님께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하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탄(8:33, 현대인의 성경)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요 6:29)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자기의 뜻

을 행하고 있습니다(참고: 요일 2:16-17).

-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2)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버렸는데(막 14:50, 현대인의 성경) “한 청년은 베 흄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51-52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a) 호크마 주석입니다: “이 청년 은 (24세에서 40세 사이의 한창 때의 나이)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의견 일치로 보고 있다. 이 청년은 잠을 자다가 예수를 체포하러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자 그는 옷 입을 틈도 없이 황급히 이 소식을 예수께 전하기 위해 겹세마네 동산까지 뛰어올라갔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였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만 발각되자 그는 흄이불을 팽개친 채 도망가 버렸다”(호크마).

(i) 저는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51절)란 말씀보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갔다(54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곤 하였습니다. 그 말은 저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이 “한 청년”이 그나마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었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ii) 호크마 주석의 말처럼 그 “한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면, 그래서 마가가 이미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처럼 도망하지 않고 적어도 발각되기 전까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면 그는 어떠한 인물이기에 그랬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이었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마가복음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바나바의 조카 또는 사촌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인터넷).
-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들을 돕는 조력자였습니다(행 13:5). 하지만, 그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계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을 이탈했습니다(15:38). 왜 마가가 그들을 떠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는 구브로에서의 선교가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시기 이후로 그들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13:4-12). 구브로에서의 선교는 오직 한 사람의 개종만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마귀가 강하게 방해했습니다. 젊은 마가 요한이 험난한 선교의 길에 낙심하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인터넷).
- 시간이 흘러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바울은 그들이 예전에 방문했던 여러 도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15:36)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었을 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일로 “심하게 다투었고”(39절) 결국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져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위로의 아들”(4:36)이라 불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에게 또다른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바울은 더 이성적인 견해를 취하여 개척선교에는 헌신, 결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마가 요한이 그들의 선교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인터넷).
-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딤후 4:11)하고 말한 것을 보면 마가 요한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졌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었기에 바울은 마가의 성장을 알아보고 그를 귀중한 동역자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참고: 호크마).
- 이렇게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비록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

갔을 때에도 우리에게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막 14:50-51). 그러다가 우리에게 잡히자 마가 요한은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51절, 현대인의 성경).

(b) 저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베 흩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51-52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20장 2-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i) 속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더구나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한(호크마) 반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1-52절에 나오는 “한 청년”은 주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사탄에게 그릇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위선자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마가복음 15:2)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가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하고 대답하셨다고 기록하였지만(막 15:2; 참고: 마 27:11) 누가는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 이전에 “우리”[마태와 마가에 따르면(마 27:1,2; 막 15:1)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즉 산헤드린 대표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언급한 “우리”도 역시 문맥상 공회에 참석한 사람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 앞에 '온'이라는 뜻의 헬라어 “하관”을 사용하여 “온우리”(공동 번역)라고 표현했습니다(호크마)]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현대인의 성경)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눅 23:2).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하고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하고 대답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3절).

(a) 마태와 마가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직접 심문하는 것으로 묘사했지만(마 27:11-12; 막 15:2-3) 누가는 고소자들에 의해 나열될 죄목 중 마지막 항목인 자칭 왕이라는 말에 대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의 묘사가 더 합리적이고 사실적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으면 이유를 먼저 밝히는 것이 당연하며 마태와 마가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끌고 오자마자 빌라도가 먼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준 것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꾸며진 일임을 더욱 선명히 부각시키고 있는 셈입니다(호크마).

(b)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유)을 보면 호크마는 3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i) 첫째로, 이 예수가 민심을 현혹하여 질서를 위협하였다[“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눅 23:2, 현대인의 성경)].

- 그 무리는 불신앙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참고: 사 53:4). 이 그릇된 생각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들의 생각을 빼돌려 놓았습니다.
-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된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사 53:2). 그들의 그릇된 관점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된 가치관이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참고: 사53:3). 그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슬픔과 질고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그릇된 생각(사53:4-5)과 그릇된 관점(2절)과 그릇된 가치관(3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된 행동(6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그릇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눅23:2, 현대인의 성경)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속한 것입니다.

(ii) 둘째로, 이 예수가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하였다[“이 사람은 …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눅 23:2, 현대인의 성경)].

- 결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세심하게 지켜보다가 첩자들을 보내 의로운 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구실을 찾아 그를 총독의 권한에 넘기려고 하였을 때 그 첩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고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하고 대

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하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눅 20:19-25, 현대인의 성경).

(iii) 마지막 셋째로, 이 예수가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지칭하여 왕권에 도전했다[“이 사람은 …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눅 23:2, 현대인의 성경)].

-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산헤드린 공회 대표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심문하기 위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막15:2)하고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의 세 가지 고소 내용 중에 세 번째 고소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대로 예수님이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참고: 호크마).
- 그 우리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하면서 “이 사람은 …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눅23:2,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로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먹이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고소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고소한 것일까요?
- 또한 저는 누가복음 23장 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19장 21-2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실로 복음서 초두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예배했었고(마 2:2) 그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었다. 이제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에 로마의 군인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옷을 벗기은채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의 십자가 아래 달아있으면서 처음에 붙여진 그 칭호를 마지막으로 달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묘하게도 예수

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약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 민족들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께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고 요구한다(요 19:21)”(호크마).

(c) “이들이 고소한 내용은 사회,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같은 음모는 이미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모의된 바이다(20:20). 고소자들이 종교적 이유를 댄 이유는 종교 문제는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심 밖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빌라도에게는 종교 문제가 호소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사회, 정치적 이유는 총독으로서 빌라도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법적인 재판이 가능하리라고 그들은 판단하여 사회, 정치적 이유만을 강조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호크마).

(2) 사탄에게 그릇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위선자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선동하고 교회 질서를 위협하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주님되심을 거부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a)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권위에 불복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적인 말씀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몸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마 22:37, 3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 생활을 진실되고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의 제일 치명적인 유혹은 바로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식구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 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마가복음 14:10-11; 마태복음 26:1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그때부터”란 대제사장들이 가롯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때부터 라고 마가(마가복음 14:11, 현대인의 성경)와 누가(눅 22:5, 현대인의 성경)는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대제사장들이 가롯 유다에게 “은화 30개를 세어 주었다”(마 26:15, 현대인의 성경), “그때부터”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 받기로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돈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a) 그리고 마가와 마태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막 14:11; 마 26:16, 현대인의 성경)고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눅 22:6, 현대인의 성경)고 기록하였습니다.

(i) 돈케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던 가롯 유다(요 12:6, 현대인의 성경)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기에(4-6절)(호크마)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므로 이미 은화 30개를 받았기에 그때부터는 대제사장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눅 22:6)]. 즉,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돈을 이미 얻었기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1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여기서 대제사장들의 뜻이란 “사람들이 없을 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은 백

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2절). 그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기회나 민중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호크마). 궁극적으로 대제사장들의 뜻은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b)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이는 것은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습니다(요 13:2,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찢어다가 가롯 유다에게 주셨을 때 가롯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27절, 현대인의 성경).

(i) 그래서 그 밤에 가롯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가서(30절, 현대인의 성경) 나중에 한 때의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횃불과 무기를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에 와서(18:1-3, 현대인의 성경) 그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과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묶어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12-13절, 현대인의 성경).

(c)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막 8:33).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31절, 현대인의 성경)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길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사탄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i)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마 4:1-11; 눅 4:1-13; 참고: 막 1:13) 사역을 끝내시고자(완성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3번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1) 첫째 유혹: (눅 23: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2) 둘째 유혹: (36-37절) "군

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 셋째 유혹: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해서 죽지 않으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에 "관리들"(35절), "군인들"(36절),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39절)를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구원하라'고 유혹을 3번이나 한 것입니다.

-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보다, 사람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비웃고, 희롱하며, 비방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3) 사탄은 단계적 유혹은 먼저 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관리들"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유혹을 한 다음,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군인들"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제일 가까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같은 사람으로도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3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치명적인 유혹은 바로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식구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마가복음 14:39-40,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1)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가서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눅 22:42-43, 현대인의 성경).

(a)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마 26:39, 현대인의 성경)하고 간구하신 반면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42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간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비교하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의 마음 자세가 좀 변하였습니다.

(i) 첫 번째 간구때에는 인성으로서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자신의 죽음 이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뤄 달라는 애타는 호소를 하셨다면, 두 번째 간구때에는 더 이상의 인성의 갈등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자신이 고난의 잔을 필연적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호크마). 즉, 두 번째 간구때에는 예수님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완전한 순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호크마).

- 그래서 첫 번째 간구때에는 예수님께서 “...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39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간구하셨지만, 두 번째 간구때에는 “...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42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하고만 간구하셨습니다.

-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는 주기도문(6:10)과 표현이 일치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의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낸 것이며(빌 2:8), 예수 공동체의 모든 기도의 모범과 근거가 됩니다. 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이 가르친 순종의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호크마).

-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작사한 베냐민 슈몰크(Benjamin Schmolck, 1672-1737)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은 죽음보다도 참기 힘든 고난의 때에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1704년, 그의 나이 32살이던 어느 날, 부부가 심방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 집이 홀랑 불타버리고, 아들 둘은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다가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Mein Jesu, wie du willst' (나의 예수여, 주님 뜻대로 하소서) 라는 찬송을 작사한 것입니다. 3절 마지막,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가 그의 신앙고백입니다(인터넷).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막 12:24, 현대인의 성경)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세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마가복음12:18-27,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22:23-28; 누가복음20:27-33)는 말씀 중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마가복음12:24-25, 현대인의 성경)[“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누가복음20:34-36,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내용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1)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막 12:24,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지난 주일 어느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한 후 교회 식구들과 친척들과 여기저기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눈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 글에 제가 그 전문 의사 선생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원치 않게 몸이 변화(예를 들어, 여자로 태어났는데 사춘기 때 즈음에 남자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였다는)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지 많은 실제 경험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록 저는 그녀에게 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제가 몰랐던 성에 대한 원치 않는 심각한 질병들에 대해서 전문 의사에게 들으면서 그 심각성과 더불어 저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런 질병으로

정체성 혼란과 온 가정의 어려움과 자살 충동과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야 하는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고 글을 써서 나눴거든요. 실제로 저의 무지함과 무식함이 드러나서 부끄럽지만 배움의 기회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a) 제가 “무지함(사 5:13)”란 제목 아래 2018년 7월 24일에 쓴 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12절),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것(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멸시하는 것(24절).”

(b) 제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란 제목 아래 2021년 7월 9일에 쓴 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주님의 매우 깊은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시 92:5-6).”

(c) 제가 “무지와 불신으로 인한 오해와 잘못된 열심과 분노”란 제목 아래 2021년 11월 26일에 쓴 글입니다: “무지와 불신으로 인한 오해와 잘못된 열심과 분노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해하려고 합니다(참고: 요 10:31-33).”

(i) 저는 이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다시 묵상할 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18-27절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13-17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들 모두가 성경에 관하여 무지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불신하였기에 오해와 잘못된 열심과 분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제가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지만 …”이란 제목 아래 2023년 12월 26일에 쓴 글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지만(잠 19:2, 현대인의 성경), 잘못된 지식이나 비뚤어진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참고: 롬 10:2, 현대인의 성경).”

- 제가 “거짓을 진리로 믿고 열심을 내는 교인을 조심해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2021년 5월 13일에 쓴 글입니다: “'진리'로 포장된 거짓을 믿고 확신 가운데 열심을 내는 자칭 '그리스도인'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의 뒤통수를 치고 배반을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 제가 “진리로 절제되지 않는 열심?”이란 제목 아래 2021년 5월 25일에 쓴 글

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절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빼뚫어 나아갈 위험이 많습니다.”

(2) 사두개파 사람들(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막 12:24, 현대인의 성경)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은 세상 철학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하였기에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참고: 호크마).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오해함”(개역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는 뜻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호크마).

(a) 그러면 그들이 몰라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전체의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눅 22:27, 44; 요5:39) 전 성경(선지자와 시편을 포함)에 걸쳐 지지를 받고 있는 부활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호크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잘못 생각(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b)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라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호크마는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헤 뒤나미스 투데우)이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혼과 흠이 된 육체를 통하여서 영적인 몸을 만드시는 것(고전 15:42-44)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사람을 현생에서의 육체적 상태로 만드신 것에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경시하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호크마).

(3)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경시하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2:25, 현대인의 성경). 누가복음 20장 34-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묶어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잘못 생각(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말씀하시면서 성경과 하나

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것을 한 3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a)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This Age)에서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결혼을 하지만)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저 세상”(“that age”)(눅 20:35)]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라지는 것으로 믿었는데(인터넷)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성경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i) 호크마의 주석입니다: “현생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한 창조 법칙이다.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출산이다. 그러나 부활 때는 창조의 목표가 완성된 마지막 때이므로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고, 그러므로 자연히 성적 만족을 요구하는 본능도 없어진다. 부활의 몸은 이렇게 존재의 규모와 질(質)이 달라지므로 결혼관계가 해소(dissolution)되고,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는 다른 새롭고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게 된다”(호크마).

- 제가 “잠시 걸어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 …”이란 제목 아래 2021년 1월 23일에 쓴 글입니다: “잠시 걸어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 나는 다가오는 세상을 사모하며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잠시 슬픈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 등을 접하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잠드신 소식을 접하고 또 접하면서 내 마음이 순간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리면서 다가오는 저 세상의 영원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을 지극히 가볍고 작게 여기렵니다. 그 이유는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고후4:17).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명예와 짐을 쉽고 가볍게 여기렵니다(마11:28-30). 그 이유는 내 주님께서 그 명예와 짐을 나와 함께 저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요 그 명예와 짐을 내려놓고 내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나는 장래의 지극히 크고 무겁고 영

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슬픔을 주님께서 승화시키시사 하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성경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생복락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천국 백성 답게 천국 생활을 계속해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십자가에 벌리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영원히 충만하게 천국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2021년 1월 21일, 고헨드릭슨 목사님의 잠드셨다는 소식을 접한 후.”

-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나의 기도”란 제목 아래 2021년 12월 7일에 쓴 글입니다: “저는 이 세상(This Age)을 떠나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고백 기도를 마음 속으로라도 드리고 주님께 가길 기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인 요한복음 6장 1-15절 오병이어의 사명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묵상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다 완성하여 주님을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요한복음 17:4).”

(b) 둘째로, 예수님께서서는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저 세상”(누가복음 20:35)]에는 아무나 다 들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 나라에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개역개정)]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부활의 자녀”(개역개정)]만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0:35, 36,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여 새롭게 사는 “저 세상”(35절)을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34절)만 믿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존재하는 그 “저 세상”(35절)[“하늘 나라”(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직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35절)[“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현대인의 성경)]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36절)[“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현대인의 성경)]이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 없다”(36절, 현대인의 성경), 즉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i)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 참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신랑 되
신 예수님을 맞이할 예배를 잘 해야 합니다(김창세).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주님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마가복음 14:53-54)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여기서 “그들”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의하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12절) “끌고”간 “대제사장”(막 14:53)은 바로 “안나스”로서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요 18:13).

(a) 여기서 “가야바”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으로서(마 26:57)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습니다(요 18:14).

(b) 그 대제사장의 집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있었던 것(막 14:53)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주동 세력은 대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안나스는 A.D. 15년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종신직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추앙받았고 가야바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안나스는 명예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가 중에서 세력의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대제사장직으로 있는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굉장한 세력을 계속 갖고 있었다. 이처럼 유대 전통에 따라 대제사장직을 종신직으로 맡고 있으면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함께 공모해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호크마).

(2)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막 14:54)하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베드로가 그리한 이유는 “그 결말을 보려고”[(현대인의 성경)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고”]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눅 22:54하-55)하고 기록하였고,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요 18:15-16)하고 기록하였습니다.

(a) 요한복음 18장 15-16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문지키는 여종에게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고 문을 통화했을 뿐만 아니라 문 밖에 서 있었던 베드로도 문지키는 그 여종에게 말하여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b) 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 버렸듯이 예수님을 구출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그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스승인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이 되어 따라왔을 것입니다.

(i) 그러나 여기에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13:38)는 말씀을 이루려는 주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18:16)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자기의 칼에 상처를 입었던 대제사장의 종(10절)도 있었을 것이므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을 것입니다(호크마).

(3)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간 베드로는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막 14:54)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요한은 “그 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요한복음 18:18)하고 기록하였습니다.

(a) “그 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쪼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한패예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딱 잡아떼었”는데(눅 22:56-57, 현대인의 성경) [(막 14:68,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오!' 하고 부인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종 하나”는 “이 문지기 여종”(요 18:17,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13:38)는 예수

님의 말씀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함).

(b)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눅 22:58, 현대인의 성경)고 누가는 기록하였고, 마태는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 떼었다”(마 26:71-72, 현대인의 성경)고 기록하였습니다(베드로의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함).

(c)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씨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마 26:73-74, 현대인의 성경)하고 마태는 기록하였고, 마가는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막 14:70-71,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습니다(베드로의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함).

(i) 흥미로운 점은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눅 22:60-62,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은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하는 말씀입니다.

- 저는 이 말씀의 장면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54절, 현대인의 성경)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요 13:38)하고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자기를 보셨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일 그리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막 14:27-28, 현대

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 다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하였습니다(2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였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기 때문입니다(30-31절, 현대인의 성경).

(d)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을 때 그가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찢고 있었을 때 베드로도 함께 서서 찢었다(요 18:18)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숫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숫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을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15, 16, 17 절).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하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15), “내 양을 치라”(16절), “내 양을 먹이라”(17절)하는 더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i) 결국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신 후 더 큰 사명을 주시사 오순절 날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사(행 2:4, 현대인의 성경)[참고: 그 때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3절, 현대인의 성경)]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완수케 하셨습니다.

세 번 부인한 자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마가복음14:27-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30절, 현대인의 성경)하셨다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마 26:70),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72절), “그가 저 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74절).

(a)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했는데(막 8:33-34)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바깥 뜰에서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 26:47-75).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b)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 16, 17).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하신 베드로(마 1:19)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15, 17), “내 양을 치라”(1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죄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사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
사(행 2:1-4)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c)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죄를 범했
다고 고발한 우리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
다”(눅 23:4),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14절) …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한 일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22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나 세 번이나 부인을 했
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
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i)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
반면에(22:61-62)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한 우리들
(23:23)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25절). 빌라도
의 세 번 부인의 소리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그 우리들의 큰
소리가 이긴 것입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 비록 그들의 소리가 이겨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참고: 사 53:10). 즉, 하나님의 뜻은 죄가 없
으신(히 4:15)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벧
전 3: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고후 5:21,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죄
를 범하지도 않으셨는데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벧전 2:22, 24,
현대인의 성경).

시험에 든 자의 변질된 행동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마가복음 14:43, 새번역)하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막 14:42)하고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 예수님을 파는(42절) 죄인(41절)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를 앞장서(눅 22:47) 곧 왔습니다(막 14:43, 새번역).

(a)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곧 유다가 단검을 가진 로마 병사들과 몽둥이를 든 성전 지키는 자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유다는 밤에 겿세마네에 계신 예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여 온 것입니다(호크마).

(i) 마가는 유다가 언제 제자들 사이에서 빠져 나가 예수님을 잡으려하는 자들과 어울렸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요한은 유다가 마지막 만찬 때에 떡조각을 받은 후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이탈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요 13:30). 아마 유다가 대가를 받고 알려 주기로 한 것은 민란을 일으키지 않고 어느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할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곳을 자주 찾으시는지를 익히 알고있던 유다는(18:2 -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그분이 유월절 식사 후 감람산 겿세마네로 가실 것을 알고 나가서 무리를 끌고 그 곳으로 왔던 것입니다(호크마).

-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조용한 기도 처소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장소로 선택한 것을 보면 깨어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어 돈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변질된 행동을 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마가복음14:37-38,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하고 간구하셨을 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눅 22:42-43, 현대인의 성경)고 기록하였습니다.

(a) 여기서 하늘로부터의 사자(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기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언급되었습니다(마 4:11; 막 1:13).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기진하셨을 때 천사가 그를 도와, 기력을 회복하시고 성령충만한 사역을 하셨으며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도 예수께서 고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기도하시며 기진하시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도와 끝까지 고난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호크마).

(2)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셨다(막 14:37; 마 26:40,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예수님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눅 22:45,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그 세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i) 왜 그 세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16:5-6,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도 너희는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슬픔에 잠겨 있다”[참고: (20절 상반절, 현

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 (22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다 슬퍼하지만 …”]. 그들이 슬픔에 지쳐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임으로(5절, 현대인의 성경)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3)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눅 22:45,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막 14:37-38,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하고 힘있게 말했던(31절) 제자인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녕 그들은 육체와 감정이 모두 인내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터에 영적인장마져 헤이해져 있었기 때문에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호크마).

(a)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38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 차려 기도하기는커녕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기도만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호크마)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4)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므로 죄를 범하지 않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창세)

(a) 첫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6-27절과 34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현대인의 성경).

(b) 둘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마태복음26:41)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 8:26,

현대인의 성경) “힘을 북돋아” 주시는(눅 22:43,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마 26:38; 롬 8:34)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마 26:41).

- (c) 셋째로,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요일 3:9), 즉 “썩지 않을 씨”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벧전 1:23-25),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롬 1:16)을 계속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요일 5:4-5).

실제로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16:15)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후(막 16:14)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5절)고 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신 것일까요?

(a) 이 질문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세 번 질문하신 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요 21:15, 16, 17)하고 더 큰 사명을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i) 우리는 주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보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 우리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셔서 따르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눅 7:9)하신 “어떤 백부장”(2절)같은 사람에게 이 위대한 선교적 사명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를 부여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 이사야 55장 8-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 고린도전서 1장 26-2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

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택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a)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은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눅 24:46-47, 현대인의 성경).

(i) 우리는 이 기쁜 소식(복음)을 우리의 “예루살렘”인 가정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해야 합니다(47절, 현대인의 성경)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마가복음 15:29-32)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이 말씀을 보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욕했습니다:

(a) 첫째 그룹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들”입니다(막15:39).

(i) 지나가는 자들은 비언어적으로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고, 언어적으로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29-30절)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마 27:39-40).
- 먼저 지나가는 자들의 비언어적인 모욕은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시편 22편 7절에 언급된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댁니다”(공동 번역)의 반영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심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시 109:25; 애 2:15)(호크마).

- (시109:25) “나는 또 그들의 비방 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 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이 나를 보면 비웃고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니다”]; (애2:15)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현대인의 성경)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이것이 아름답다던 성이냐? 이것이 천하의 자랑거리로 소문난 성이냐?' 하고 비웃고 있다”].

- 지나가는 자들의 언어적인 모욕은 ‘성전을 헐고 3일만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였습시다(막 15:29-30; 마 27:40). 이 모욕적인 발언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들은 (1)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하였고(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믿었음),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함으로 신성 모독 죄로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3) 예수님에게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너라’하고 조롱”한 것(마 27:40,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할 메시아(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조롱이었습시다.

(b) 둘째 그룹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막 15:31).

- (i) 마가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마 27:41)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산헤드린의 중추적 인물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것인데 아마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호크마).

- 여기서 “그와 같이”란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멸시하고 조롱한 것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심히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의미입니다.

- 그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지나가는 자들처럼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 그들의 회롱(조롱) 내용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현대인의 성경)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막 15:31)하고 마가는 기록한 반면에,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마 27:42-43).
 - 이 회롱(조롱)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1)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믿지 않았고[“이스라엘 왕이라는 자야”(42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3)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지 않았습니다[“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43절, 현대인의 성경)].
 - 이러한 불신앙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예수님을) 구원하실지라”(마 27:43)하고 조롱하였는데 이 조롱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
- 그들도 “지나가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막 15:32, 현대인의 성경)하고 조롱하였는데 추가로 이들은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32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하였는데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거짓과 악의에 찬 약속입니다(호크마)

(c) 셋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막 15:32).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두 강도들입니다(27절).

(i) 성경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두 강도들까지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32절; 마 27:44, 현대인의 성경),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현대인의 성경)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눅 23:39). 그랬을 때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41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했다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 여기서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죄수)는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하고 비방한 것을 보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호크마).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하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매달린) 다른 강도(죄수)까지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기 원했지만(육신의 생명이 건짐을 받기를 원했지만) 다른 강도(죄수)처럼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다른 강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음(눅 23:42-43, 현대인의 성경)]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9-32절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전에 묵상한 말씀의 글을 다시금 읽고 나누고 싶습니다:

(a) 예수님께서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현대인의 성경은 “성경에는”)(4, 7, 10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에도 마귀의 종들인 (1) “지나가던 사람들”과 (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3) 예수님과 함께 못박힌 두 “강도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22:39, 41, 44). 그 시험이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보러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참고: (40절, 현대인의 성경)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

가에서 내려오너라”; (42절, 현대인의 성경)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말고 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i) 이 시험에 빠진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서 가르치”셨을 때(마 16:21)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2절)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 베드로는 인간의 동정심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원치 않으므로 “이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기보다 사람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인간의 동정심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앞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앞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네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가복음 11:11-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3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막 11:12)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데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잡수시지 못하시면 시장하셨고(마 4:2), 피곤하셔서(요 4:6) 배의 뒷부분에서 배개를 베시고 주무셨고(막 4:38) 또한 목이 마르셨다(요 19:28)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연약하셨을 때 사탄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와서 예수님을 많이 시험했지만(예: 마 4:3ff.)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에(히 4:15) 죄가 없으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연관해서 묵상하며 반영해 볼 때 저는 배가 고파들 때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아내에게 좀 짜증을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사탄이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 심지어 부부 갈등을 일으켰던 기억도 납니다.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배가 고프면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아내에게 죄를 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을 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마 4:1-3, 현대인의 성경)고 시험(유혹)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4절)하고 대답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 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연약하여 시장할 때(배가 고프는 때)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7)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싸워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승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참고: 요일 5:4 -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 예수님께서 멀리서 앞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앞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막 11:13)는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개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a) “작은 불꽃 하나로 남아” 2절 가사: 이름없는 들풀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찬바람에 견디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꽃 피우지 못한 죄인 열매 없는 무화과라 허송세월 보낸 이 몸 엮드리어 우웁니다 슬픔 근심 가득 찰 때 하늘나라 소망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어둔 세상 향내내는 작은 들 풀 하나로 남아 피우고 또 피워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b)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후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i) 이 두 복음성가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3절과 연관해서 묵상하고 반영하고 적용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혹시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지 바라보시고 계실텐데 저는 “꽃 피우지 못한 죄인 열매 없는 무화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비록 나무에 앞사귀와 열매가 없을지라도 …”란 제목 아래 쓴 짧은 말씀 묵상 글입니다: “장인 어른신이 걸을 좀 걸으실 수 있으셨을 때 집 뒤뜰에 있는 한 나무에다가 물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때 저는 장인 어른신의 뒤에서 물호수를 들고 장인 어른신을 따라 그 한 나무에 물을 주시는데 보조했습니다. 근데 그 한 나무는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에 앞사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 어른신을 그 나무에 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열매 없고 앞사귀 없는 그 나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사랑의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

(3) 예수님께서 그 앞사귀만 무성한 무화가 나무를 향해 “사람이 네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막 11:14,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호크마의 주석 글

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 예수께서 강하게 저주한 것은 예수께서 시장하셨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극적이고도 예고적으로 보여준 표징이었다. 잎은 많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외적인 인상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모성을 상징한 것이었다”(호크마). 특히 저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외적인 인상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모성을 상징한 것”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만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려하게까지 보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발전이나 결실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회의 화려함을 묵상할 때 제가 전에 묵상한 짧은 말씀 묵상 글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 (a)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니면 화려한 교회인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나아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니면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교회의 화려함만을 힘써 홍보하는 교회인가? (참고: 시편 133:1, 사도행전 6:5; 엡 4:3)”
- (b) “세상적으로 화려한 교회의 부끄러운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교회의 부끄러운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참고: 이사야 47:3,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녀의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 (c)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여기는 화려한 교인들의 모습?":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여기는 화려한 교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참고: 이사야 47:1, 현대인의 성경).”
 - (i)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죄를 깨닫게 하시사 인정하며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마 7:17, 18, 19)를 맺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란 영원한 생명(14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21절)과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와 선행(엡 2:8-10)입니다.

악인들의 말로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누가복음 20:17,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에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다(마가복음 12:10-12; 마태복음 21:42-46; 누가복음 20:17-1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마 21:44, 현대인의 성경; 참고: 눅 20:18,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문맥상으로 여기서 돌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형국에 처해질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로란 ‘깨어질 것이다’와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의미는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의 형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파멸을 말합니다(호크마).

(a)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73편 아삽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삽은 교만한 악인들이 잘 되는 것(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여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반면에 (시 74:2-3, 현대인의 성경) 의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니까(14절)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그에게 심한 고통이 되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최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16-17절). 아삽이 깨달게 된 악인들의 종말(최후)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현

대인의 성경)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시므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18-20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치 못한 자를 주는 멸망시키셨습니다”(27절, 현대인의 성경).

(b)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시편 92편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악인이 잡초처럼 성장하고 번영할지라도 영원한 파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행동을 보아야 하는지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i)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악인은 흥왕하되 신속하게 흥왕한다는 말씀입니다.

-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악인을 풀과 비교하면서 "생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수고도 들이지 않고 간교함 속에서 신속하게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뒤뜰 잔디가 죽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내와 제가 약도 뿌려보고 물도 뿌려보고 씨를 사서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빨리 자라나서 푸른 녹색의 잔디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같이 악인의 행동은 풀처럼 신속한 것을 시편기자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i) 악인의 행동은 마치 들풀의 무성함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 악인들이 그들의 흥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풀과 같은 악인의 행동, 그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iii) 악인의 신속한 행동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 예를 들어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 잘 먹여서 살을 찌우는 것처럼 악인의 행동의 목적은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D.L. Moody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인은 필경 풀처럼 연료가 되기 위하여 생장한다"(무디).

(c)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현대인의 성경)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i)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정녕히 우리의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잠 23:17-18; 24:1).

- 우리는 고난이 없는 악인의 형통함보다는 고난이 있는 의인의 형통함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할만한 악인의 형통함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없기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형통함에는 그 고난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있기에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시 73:3-6, 14, 16; 히 5:8).

야고보와 요한의 헬리콥터 엄마(helicopter mom)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 두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일러주셨는데(마가복음 10:32-34, 현대인의 성경)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하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습니다(35-37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하고 물으셨고 그들은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들의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38-40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는데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하고 부탁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그런 부탁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 그리 부탁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자 사회 용어인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부모가 자식들의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며 모든 일에 간섭하려 드는 부모를 의미합니다(인터넷): “내 아이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곱게 자라길 바라는 좋은 뜻에서 시작한 아이에 대한 간섭! 하지만 이것은 세심한 보호와 지나친 배려를 넘어서 ‘과잉보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과잉보호 하는 부모는 교육적 무지, 불안, 미성숙,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이 원인 일 수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 관계로 배우자에게 실망을 갖고 그 실망을 아이에게 보상받으려는 심리도 있을 수 있어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과잉보호의 결정적 요소를 부모의 ‘감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는 자신이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대여야 하며, 아이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해요.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나 소유물이 아니지만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은 자녀를 독점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요?”(인터넷) 제 생각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는 ‘헬리콥터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서로 다투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막 9:34; 참고: 마 18:1; 눅 9:46, 22:24, 현대인의 성경)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사실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기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 20:20-21, 현대인의 성경). 왜 자식들 일에 어머니가 나서서 그리했을까요? 이렇게 헬리콥터 엄마는 자식들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무리하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무리함에는 무지함도 있기에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의 어머니를 본받아 무지하였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2) 헬리콥터 엄마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나 야고보와 요한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고자 할 때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선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광만을 받으려고 했었지 고난은 전혀 염두해두지도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은 마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11절 말씀으로 말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들의 어머니가 몰랐던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6-8절)은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9-11절, 현대인의 성경)만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의 간구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고난의 잔”은 받지 않고 자기들의 원(하는)대로(참고: 막 14:36)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신 로마서 8장 17-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 우리가 그(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헬리콥터 엄마의 과잉보호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몸은 ‘예수님과 함께’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음과 정신과 감정은 자신들의 헬리콥터 ‘엄마와 함께’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고(그것은 pass하고) 헬리콥터 엄마와 함께 영광만을 받길 원합니다.

(3)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과 받으셔야 할 세례를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는데(막 10:38-39,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그들은 그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자신감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들의 자신감은 무지함에 근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이나 받으셔야 할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헬리콥터 엄마가 원하는 영광은 무지함 가운데서도 너무나 원했기에 “예, 할 수 있습니다”(39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대답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허영심에 근거한 자신감을 갖게 된 원인은 그들의 헬리콥터 엄마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헬리콥터 엄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공동번역):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신앙의 승리자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신 후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모으시고 하신 말씀 중에(마가복음 8:31, 34, 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9:1, 현대인의 성경)[“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마태복음 16:28, 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누가복음 9:27, 현대인의 성경)]. 옛 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라”(28절, 현대인의 성경)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29절, 현대인의 성경)] “그 옷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마태복음 17:2,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마가복음 9:2-4,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누가복음 9:31-32, 현대인의 성경). 이 광경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몹시 무서워했고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하고 말하였습니다(5-6절,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에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 17:5-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마가복음 9:9-11,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야가

벌써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갖은 학대를 하였다”(12-13절, 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마태복음 17:12, 현대인의 성경).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마태복음 17:1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 때에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누가복음 9:3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1)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막 9:1, 현대인의 성경)[“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마 16:28, 현대인의 성경);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눅 9:27,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 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옛세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 모습이 변하여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고 광채가 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므로(막 9:2-4; 마 17:2; 눅 9:2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실례를 보여 주셨습니다(참고: 매튜 헨리).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실례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a)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하신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5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b)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눅 9:30-3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요한이 환상에서 본 요한계시록 7장 9-17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

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 여기서 “흰 옷 입은 사람들”, 즉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은 “신앙의 승리자”로서(21:7,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들어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10절,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11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27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2)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고(눅 9:31-32, 현대인의 성경) 이 광경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몹시 무서워했고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5-6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두 성경 이야기 또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a) 제일 먼저 생각난 성경 이야기는 겔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을 때 졸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눅 22:46,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접하게 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과 4장 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과 5장 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b) 그 다음에 생각난 성경 구절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지만 나중에 오순절 날 성령충만함을 받은 후 그가 쓴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2-1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뵈도록 노력하십시오.”

(3)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에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마 17:5-8,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게 됩니다:

(a) 베드로가 들은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말씀(마 3:17, 현대인의 성경)도 생각나지만 또한 저는 베드로후서 1장16-1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b)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려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개역개정)] 하신 말씀(마 17:6-7)을 묵상할 때 복음서가 “일어나 걸어라(나의 등 뒤에서)” 2절과 후렴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치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하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14:29-31, 현대인의 성경)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에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사 일으켜 주시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참고: 빌 3:14).

(4)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마 17:8,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믿음이 적어서 자꾸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이것저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하고 물었다(막 9:9-1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시다가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유대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요 11:6-15, 현대인의 성경).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거만 아마 지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내용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고전 15:12, 현대인의 성경)

(6)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야가 벌써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갖은 학대를 하였다”(막 9:12-13, 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마 17:12, 현대인의 성경)고 대답하셨을 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13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a)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막 9:11, 현대인

의 성경)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라기 4장 5-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보라! 나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레 요한”을 말씀하신 것인데 세레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것은 진정한 “회복”(restoration)은 “회개”(repentance)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b) 그랬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레 요한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고(막 9:13, 현대인의 성경)[“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개역개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신 예수님(마 4:17)도 “이와 같이 … 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17:12, 현대인의 성경). 지금도 세레 요한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학대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우”(막 9:13)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제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그 때에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눅 9:36,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종이요 제자인 목사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때 침묵을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에스겔 33장 6-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피로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여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억지로"라도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마가복음 15:21)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총독의 군병들(마 27:27)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눅 23:26)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막 15:21)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습니다(마 27:32).

(a) 여기서 “억지로”란 말은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말로서 마치 중앙정부로부터 특명을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차출해갔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서 '징발하며'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호크마).

(i)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1) (막15: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 (마 27:32)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3) (마 5: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 여기서 (3)은 산상수훈의 일부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과 관용을 베풀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즉, 억지로 시키는 일이라도 기꺼이 더 나아가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인터넷).

-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짐을 나르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강제 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구절은 그러한 강제 부역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오리만 가는 것

이 아니라 십 리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더 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인터넷).

■ 섬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위대함은 기꺼이, 심지어 값비싼 봉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십리"의 윤리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마 20:28)고 하신 구주를 반영합니다(인터넷).

- 여기서 (1)과 (2)는 총독 군병들이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몬을 징집하는 장면은 강제 노역과 십자가의 길을 생생하게 연결해 줍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했던 시몬은 제자도의 생생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필요한 도구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언급(막 15:21)은 그의 가족이 후에 초기 교회에서 알려지게 되었음을 시사하며(참조: 롬 16:13), 강제적인 행위가 지속적인 신앙과 사역의 영향력으로 꽃피웠음을 암시합니다’(인터넷).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때 시몬처럼 억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셈이지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도 말입니다(빌 1:29,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억지로’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참고: 호크마).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마가복음 10:17-18, 현대인의 성경; 참고: 마태복음 19:16-17; 누가복음 10:2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막 10:17, 현대인의 성경)하는 질문을 묵상할 때 ...

(a)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i)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 두번째로 생각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i)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므로 우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참고: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요 6:40, 현대인의 성경)].

(c) 세번째로 생각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i)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롬 6:23, 현대인의 성경).

(d) 네번째로, 요한복음 3장 3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i)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간 것이다”(요 5:24, 현대인의 성경)].

(e)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i)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인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대로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요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요한일서3:15, 현대인의 성경).

(f) 여섯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니다”(요일 1:2,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5:20, 현대인의 성경).

(g)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h) 마지막 여덟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무지의 필연적인 결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마가복음 14:63-65)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은 행동은 극한 슬픔에 직면했거나 의로운 분노의 한 표현으로 행하던 유대인들의 전통적 행동이었습니다(왕하 1:37; 1 Macc.11:71). 특히 랍비들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율법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법관은 일어나 옷을 찢도록 했습니다(호크마). 가야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는 말”(막 14:64; 마 26:65)이었기 때문입니다.

(a)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이란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메시아)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가장 중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호크마).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i)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호크마).

(2)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막 14:63-64)하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말했는데 산헤드린을 위시한 군중들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습니다(64절)(참고: 호크마).

(a)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기에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을 위시한 군중들도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을 다 들었다”하고 외친 것입니다(눅

22:71, 현대인의 성경).

- (i)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마26:63, 현대인의 성경)하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처형할 합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가 원하는대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막14:62)하고 말씀하심으로 율법적으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말한 것입니다(64절).

-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습니다(64절).

- (b)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되 죄가 없으신 온전한(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 8:3)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데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기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육신의 죄를 정하사”(3절)].

- (i) (사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벧전 2:24) “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영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즉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

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결과는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다 나음을 받았으며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막 14:65)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호크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a) 실로 불법 판결이 끝나자 주위에 기다리고 있던 하속들이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학대와 조롱을 일삼은 것입니다(막 14:65). 정녕 그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최악의 수치를 예수께 안겨준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더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민 12:14; 욥 30:10). 그리고 “주먹으로 치며 ... 손바닥으로 치더라”(막 14:65)란 말씀은 도무지 반격할 수 없는 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더욱 야만적입니다(호크마).

(i) 한편 누가는 이때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구타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눅 22:64). 이와 함께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손바닥으로 때리며”(헬라어: “에르라피산”)는 '몽둥이로 때리다' 뜻하는 헬라어 “라피스 마”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 당시 하속들은 손바닥뿐 아니라 몽둥이로도 예수를 심하게 구타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호크마).

- 실로 그들은 신성 모독자를 구타한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 무지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호크마).